

1.영역별 출제 현황

출제 영역	출제 영역	출제 내용	난이도	출제 문항 수
선사 ~여러나라	여러 나라의 성장	부여의 정치 제도	하	1
고대	정치	원광법사의 ‘걸사표’	중	4
		신문왕의 정책	하	
	경제	금관가야의 대외 교역	하	
	문화	연개소문의 도교 장려 정책	중	
고려시대	정치	중앙 정치 제도	하	5
		거란과의 관계	하	
		이자겸의 난~몽골의 침략(시기 순 나열)	하	
		서경과 관련된 사실(동녕부 설치)	하	
	문화	『삼국사기』의 특징	중	
조선시대	정치	양사(사헌부, 사간원)의 기능	하	3
		정조의 정책	하	
	문화	실학과 국학의 발달	하	
근대사	정치	흥선대원군의 정책	하	3
		오페르트 도굴 사건	하	
		을사늑약의 내용	하	
일제 강점기	정치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	하	2
		신간회의 활동	하	
광복 이후 현대사	정치	모스크바 3상 회의와 미소 공동 위원회	하	2
		7.4 남북 공동 성명	하	

2. 총평

2021년 6월 시행 지방직 한국사 시험의 난이도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출제되었는지 이유를 찾아보면 첫째, 전근대사 13문제 중 9문제가 문제가 고대~고려 시대에서 출제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조선 시대를 가장 어렵게 여기는데 조선 시대 문제가 3문제 밖에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전근대사 영역에서 경제·사회·문화사 영역이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삼국사기』의 특징을 묻거나 조선 후기 실학자와 역사학자의 이름을 찾는 문제 등이 출제되긴 했으나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라 사실상 분류사 부분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제시문을 읽고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하는 문제가 거의 없고 제시문을 읽어보면 선택지에서 바로 찾을 수 있거나 아주 쉬운 사건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순서 나열식 내지는 연표식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한국사의 베이스가 있는 수험생이라면 직관적으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넷째, 근현대사 영역에서도 사회·경제·문화 영역의 주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근대의 문물, 일제 강점기의 사회 모습, 현대의 경제·사회 현상 등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주제에서 출제되지 않은 것이 난이도를 낮춘 요인이 되었습니다. 마침 오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53회 심화 시험이 있었는데 오히려 한능검 심화 문제보다 쉬웠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국사 과목은 최소한 90점 이상 득점을 해야 합격권에서 감점 요인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2021년 지방직 한국사 문제 해설(@책형)

1번 ③

[해설]

제시문은 『삼국지』 위서 동이전 중 ‘부여전’의 내용이다. 부여에는 가족의 이름을 딴 사출도가 존재하였다.

[오답 확인]

- ① 옥저의 골장제와 가족공동묘 풍속이다.
- ② 읍군·삼로는 옥저와 동예의 군장이다.
- ④ 삼한에는 천신을 섬기는 제사장인 천군이 존재하는 제정분리 사회였다.

2번 ①

[해설]

제시문은 금관가야의 건국 설화이다.

[오답 확인]

- ① 금관가야는 해상 교역을 통해 낙랑과 왜에 철을 수출하였다.
- ② 박, 석, 김씨가 교대로 왕위를 계승한 것은 신라이다.
- ③ 정사함 회의를 통해 재상을 선발한 나라는 백제이다.

3번 ④

[해설]

고려 시대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구성하였다. 도병마사는 국방과 군사에 관련된 결정을 하였고, 식목도감은 대내적인 법식 제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가)는 식목도감이다.

[오답 확인]

- ① 고려 시대의 삼사는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를 담당하였다.
- ② 상서성은 백관(白官)을 모두 관할하던 관청으로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6부(部)가 이에 소속되었다.
- ③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을 구성하였다.

4번 ①

[해설]

발해를 멸망시킨 민족은 거란족이다. ① 거란의 1차 침략을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해결하였으나 1009년 강조의 정변으로 목종이 폐위되고 현종이 즉위하자 거란은 강조를 처벌하겠다는 이유로 2차 침략을 감행하였다. 이때에는 개경이 함락되고 현종이 나주까지 피신하였으나 양규가 거란군을 맞아 분전하기도 하였다.

[오답 확인]

- ② 예종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9성을 축조하였으나 2년 만에 돌려주었다.
- ③ 몽골의 1차 침략을 박서가 귀조성에서 잘 막았으나 몽골군이 우회하여 개경을 포위하자 몽골과 고려 정부 사이에 화친이 맺어졌다. 화친 체결 이후 몽골은 서북면 지역의 요지에 72명의 다루가치를 남겨두고 철수하였다.
- ④ 몽골은 1258년 화주에 쌍성총관부를 설치하여 그 일대를 직할지로 삼았다.

5번 ①

[해설]

조선 시대 사헌부와 사간원은 양사 또는 대간으로 불리며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가)는 사헌부이다.

[오답 확인]

- ② 교서관은 경적의 인쇄와 제사시 향축문·인신을 담당하였다.
- ③ 승문원은 외교 문서의 작성을 담당하였다.
- ④ 승정원은 왕명 출납을 담당하였다.

6번 ②

[해설]

제시문은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도교를 장려하는 내용이다. 연개소문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숙달 등 8명의 도사를 맞아들이고 도교를 육성하였다. 한편 고구려는 당의 팽창 정책에 맞서 부여성에서 발해만 입구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는데 연개소문은 대당 강경책의 일환으로 천리장성의 축조를 주도하였다.

[오답 확인]

- ① 당나라와 동맹을 체결한 나라는 신라이다.
- ③ 살수대첩에서 승리한 인물은 을지문덕이다.
- ④ 남진 정책을 추진하여 한성을 점령한 것은 장수왕이다.

7번 ③

[해설]

세속오계를 지은 승려는 신라의 원광이다. 원광은 진평왕의 부탁으로 수에 ‘결사표’(608)를 써서 보냈다. 이는 수나라의 군사를 청해 고구려를 치기 위한 것이었다.

[오답 확인]

- ① 원효에 대한 설명이다.
- ② 의상에 대한 설명이다.
- ④ 혜초에 대한 설명이다.

8번 ③

[해설]

『북학의』를 저술한 실학자는 박제가, 『해동역사』를 저술한 인물은 한치윤이다.

[오답 확인]

박지원은 『열하일기』, 『과농소초』, 『한민명전의』, 『방경각외전』 등을 남겼다. 안정복은 『동사강목』, 『열조통기』, 『천학문답』 등을 남겼다.

9번 ③

[해설]

(라) 이자겸의 난(1126) → (가) 정중부와 이의방의 정변(무신정변, 1170) → (나) 최충원의 집권(1196) → (다) 대몽항쟁(충주성 전투는 몽골의 5차 침략 당시 충주산성 방호별감 김윤추가 몽골군을 격퇴한 전투이다, 1253)

10번 ④

[해설]

제시문은 태조가 남긴 ‘훈요 10조’ 중 서경을 중시하라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1269년 최탄 등이 원종을 폐하고 안경공 창을 세운 임연을 친다는 구실로 서북면에서 반란을 일으켜 원에 투항하였다. 이를 계기로 원의 세조는 1270년 자비령을 경계로 삼아 그 이북 지방은 모두 원나라의 소유로 한 뒤 서경에 동녕부를 설치하고 최단으로 동녕부총관을 삼았다. 이에 원종은 원의 연경까지 가서 동녕부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관철되지 않고 1275년 동녕부총관부로 승격되었다.

[오답 확인]

- ① 대장도감은 강화도에 설치되었다.
- ② 지눌이 공산(현재의 팔공산) 거조사에서 정혜결사를 결성하였고 이후 지리산 송광산 쪽으로 옮겨 정혜결사를 수선사결사로 개칭하였는데 그 중심 사찰은 현재의 송광사이다(신라 말 혜린 선사가 송광산에 길상사를 창건하였고 최씨 무신집권기에 지눌이 정혜결사를 이곳으로 옮겨와 수선사결사로 개칭하면서 사찰의 이름도 수선사를 거쳐 송광사로 개칭되었다).
- ③ 망야망소이의 봉기는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났다.

11번 ②

[해설]

제시문은 『삼국사기』 서문이다. 『삼국사기』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오답 확인]

- ① 일연의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이다.

- ③ 조선 전기에 서거정 등이 저술한 『동국통감』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신라의 역사서인 『국사』에 대한 설명이다.

12번 ②

[해설]

문무왕 다음에 즉위한 왕은 신문왕이다. 신문왕은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을 교육하였다.

[오답 확인]

- ① 건원이라는 연호를 제정한 왕은 법흥왕이다.
- ③ 백성에게 처음으로 정전을 지급한 왕은 성덕왕이다.
- ④ 진골 출신으로 처음으로 왕위에 오른 인물은 무열왕이다.

13번 ③

[해설]

초계문신제를 실시하고 규장각을 설치한 왕은 정조이다. 정조는 1791년 육의전을 제외하고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는 신행통공을 실시하였다.

[오답 확인]

- ① 동학이 장시된 것은 1860년으로 철종 재위 시기이다.
- ② 『대전회통』은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편찬하였다.
- ④ 흥경래의 난은 1811년으로 순조 재위 시기이다.

14번 ②

[해설]

빈칸에 들어갈 인물은 흥선 대원군이다. 흥선 대원군은 서원을 대폭적으로 철폐하여 왕권 강화와 국가 재정 확충, 민생 안정을 도모하였다.

[오답 확인]

- ① 『대한민국제』는 1899년 8월 대한제국의 헌법으로 제정되었다.
- ③ 우정충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 갑신정변을 일으킨 인물들은 김옥균 등의 급진 개화파이다.
- ④ 황준선의 『조선책략』을 가지고 온 인물은 김홍집이다.

15번 ②

[해설]

제시문은 1919년 탑골공원에서 시민들에 의해 전개된 3·1 운동에 대한 내용이다. 3·1 운동 실패 후 민족 운동가들은 더욱 조직적인 독립 운동의 전개를 위해 각지에 임시정부를 수립하였고 1919년 9월에 상하이에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는 상하이와 국내의 연결을 위해 비밀 행정 조직인 연통제와 통신 조직인 교통국을 설치하였다.

[오답 확인]

- ① 『대동단결선언』은 1917년 신규식, 신채호, 신석우, 조소앙, 신건식, 이상설, 박은식 등 14인의 독립운동가들이 발표한 공화제 선언문이다. 조소앙이 초고를 하였고 신채호 등이 감수하였다.

(중략) 융희 황제가 삼보(영토, 인민, 주권)를 포기한 경술년(1910) 8월 29일은 즉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그 동안에 한순간도 숨을 멈춘 적이 없음이라. 우리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니 저 황제권 소멸의 때가 곧 민권 발생의 때요, 구한국의 마지막 날은 즉 신한국 최초의 날이니, 무슨 까닭인가. 우리 대한은 무시* 이래로 한인의 한이요 비한인의 한이 아니라. 한인 사이의 주권을 주고받는 것은 역사상 불문법의 국현이요. 비한인에게 주권 양여는 근본적 무효요, 한국의 한민성이 절대 불허하는 바이라. 고로 경술년 융희 황제의 주권 포기는 즉 우리 국민 동지에 대한 묵시적 선위니, 우리 동지는 당연히 삼보를 계승하여 통치할 특권이 있고 또 대통을 상속할 의무가 있도다. (하략)

-대동단결선언

- ③ 신민회가 주도하여 서간도 삼원보에 설립한 신흥강습소(1911)가 3·1 운동 이후 신흥무관학교로 개칭되었다.
- ④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강령으로 삼아 의열투쟁을 전개한 단체는 의열단이다.

16번 ③

[해설]

제너럴 셔먼호 사건(1866)과 신미양요(1871) 사이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1868)이 발생하였다.

[오답 확인]

- ① 갑오 2차 개혁 시기인 1895년 1월 7일 고종은 주한일본공사 이노우에와 내부대신 박영효의 권고에 따라 종묘에 나가 「독립서고문」과 「홍범14조」를 선포하였다. 또한 1월 14일에는 사직단에 행차하여 「홍범14조」를 순한글체·순한문체·국한문혼용체로 각각 작성하여 선포하였다.
- ② 윤요호 사건은 강화도 조약 체결 전인 1875년에 일어났다.
- ④ 임오군란은 1882년에 일어났다.

17번 ④

[해설]

제시문은 신간회(1927~1931) 창립 배경에 대한 내용이다. 신간회는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당시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고 민중 대회를 계획하였다.

[오답 확인]

- ① 조만식이 1920년 평양에서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하였고, 1923년 서울에서 조선물산장려회가 설립되었다. 물산장려운동은 신간회와 관련이 없다.
- ② 1920년 6월 한규설, 이상재, 윤치소 등 100명이 조선교육회설립발기회를 개최하면서 민립대학설립운동이 시작되었다. 1922년 1월 이상재, 이승훈, 윤치호, 김성수, 송진우 등이 조선민립대학기성준비회를 결성하였고 1923년 3월 총회를 개최한 후 ‘민립대학발기취지서’를 채택하고 대학 설립 계획서를 확정하였다. 민립대학 설립 운동은 신간회 설립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 ③ 브나로드 운동은 동아일보가 주관하여 1931년부터 전개되었다.

18번 ④

[해설]

제시문은 을사늑약에 대한 내용이다. 을사늑약의 내용 중에서 일본의 중개 없이 국제적 성격을 가진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오답 확인]

- ① 조선총독부를 설치한다는 규정은 1910년 8월 22일에 체결하고 29일에 발표한 한일병합조약에 포함되어있다.
- ②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 일제의 강요로 체결된 조약은 1907년 7월에 체결된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이다.
- ③ 방곡령 규정은 1883년 조일통상장정 개정제에 포함되어있다.

19번 ①

[해설]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민주주의적 임시정부 수립,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미소 양군 사령부 회의 개최, 미·영·중·소에 의한 최고 5년 기한의 신탁통치 실시 등이다.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결정된 신탁통치의 실시 과정을 보면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 한반도의 대표 기구 구성 → 미소공동위원회와 한반도의 대표 기구가 협의하여 민주적 임시정부 구성 → 미소공동위원회와 민주적 임시정부가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 결정”이다. 따라서 (가)는 미소공동위원회이다.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는 두 차례 모두 대표 기구 구성 문제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이견으로 결렬되었다.

[오답 확인]

- ② 조선건국준비위원회(1945.8.15.)는 여운형이 조직한 조선건국동맹(1944.8)이 광복 직후 개편된 것이다.
- ③ 제헌협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었다.
- ④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로 정부를 수립한다는 결정은 1947년 11월 유엔총회에서 결정되었다.

20번 ②

[해설]

4·19 혁명(1960)과 유신헌법 공포(1972) 사이에 해당하는 사건으로는 1972년에 남과 북이 동시에 발표한 7·4 남북 공동 성명이다.

[오답 확인]

- ①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48년 9월 22일에 제정되었다.
- ②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은 1991년 9월이다.
- ④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80년에 발생하였다.